

이덕일의 '역사의 창'



'예예 정권'과 '아니오 정권'

중국사에는 유명한 간신 계보들이 있다. 당나라의 경우에는 현종(玄宗) 때의 이인보(李林甫)와 덕종(德宗) 때의 노기(盧杞) 등을 그런 인물로 꼽는다. 간신들의 공통 특징은 윗사람들의 마음을 기막히게 사로잡는다는 점이다. 당 덕종(德宗)이 이면(李勉)에게 "여러 사람들이 모두 노기가 간사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경은 그 실상을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면은 "천하 모두가 그 간사함을 알고 있는데 오직 폐하만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간사하다는 까닭입니다"라고 대답했다.<구당서(舊唐書) '이면 열전'>

인재를 구한다는 소리는 높지만 정작 인재가 채용되기는 쉽지 않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등용하는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한(漢) 무제(武帝 : 재위 서기 전 157~서기 전 87)가 하루는 안사(顔驥)라는 백발의 낭관(郎官)을 만났다. 백발이 되도록 중간 직위의 낭사에 머물고 있는 안사에게 "언제

낭관이 되었느냐"고 묻자 문제(文帝 : 재위 서기 전 180~서기 전 157) 때라고 대답하였다. 무제가 중용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문제께서는 문(文)을 좋아하셨는데 신은 무(武)를 숭상했고, 경제(景帝)께서는 노인을 좋아하셨는데 신은 그때 아직 젊었고, 폐하께서는 젊은이를 좋아하시는데 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래서 삼세(三世)에 걸쳐서 불우하게 되었습니다."<문선(文選) '사현부'(思玄賦)>

고려 후기의 문신 가정(敬享) 이곡(李穀)은 "임금이 어떠한 것을 숭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가정집(稼亨集)> 라고 말한 것도 인재 등용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의 성향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모의 경우이고 천하 정세를 보는 국사나 왕사 같은 경우는 등용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지는 않는다. 또한 임금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도 않는다. 공자 역시 쓴소리를 자주 했기에 군주들이 쓰지 않았던 비운의 지식

인이었다. 노(魯)나라 임금 정공(定公)이 공자에게,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 말이 있는냐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금 노릇 하기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고 합니다. 만일 임금의 말이 착해서 아무도 어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착하지 않은데도 아무도 어기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논어(論語) '자로'(子路)> 군주의 말이 착하지 않은데도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라를 잃게 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군주의 말에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주위에 '예예'를 읊조리던 간신들만 가득 차서 귀에 거슬리는 일체의 간언을 용납하지 않았던 정권의 말로를 생생하게 목도 중이다. 또한 블랙리

스트 파문에서 보듯이 '예예'를 읊조리는 간신들이 얼마나 반인간적, 반문명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지도 새삼 목도 중이다.

도유(都俞)라는 말이 있다. 도유우불, 또는 우불도유의 존말인데 임금과 신하가 허심탄회하게 논쟁하면서 정사를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서경(書經) '요전'(堯典) 등에 나오는 말인데 임금과 신하가 서로 정사를 논의할 때 상대의 의견에 찬성할 때에는 도(都)·유(俞)라고 말하고, 반대할 때에는 우·불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용어다. 현 정권처럼 '예예'만을 용납했던 '도유 정권'의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한국 사회처럼 각종 기득권 카르텔이 심한 나라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온갖 박해에 시달린다. 그렇기에 각종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진한 '우불 정권'이야말로 객관적으로 성공한 정권이 들어설지 두고 볼 일이다.

<한가림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마그네슘이 부족해 눈꺼풀이 떨린다고요?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눈꺼풀 또는 눈 주위가 떨리거나 입 주위 얼굴이 쭈뼛쭈뼛 떨리는 증세는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얼굴 떨림의 원인은 단순 피로부터 뇌혈관, 뇌신경 이상까지 다양하다. 가볍게 지나가는 얼굴 떨림이 있는가 하면 뇌혈관수술을 받지 않으면 낫지 않는 것까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다. 눈꺼풀 떨림 증세는 대개 1주일을 넘지 않고, 눈이 잘 감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 눈꺼풀 떨림을 마그네슘 부족 탓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미국 명문 병원, 메이오 클리닉의 눈꺼풀 떨림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명쾌한 답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눈꺼풀 떨림의 근본 원인은 알 수 없다. 술, 밝은 빛, 카페인 과다 섭취, 피로, 눈꺼풀 안쪽

의 이물감, 담배, 스트레스, 바람 등으로 눈꺼풀 떨림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마그네슘 부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마그네슘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병이고 여러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서 눈꺼풀 떨림도 동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단지 눈꺼풀 떨림 증세만 있는 사람에게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건 비약이다. 현재까지 눈꺼풀 떨림을 마그네슘 부족으로 설명하는 연구결과는 단 한 편도 찾지 못했다.

떨린다는 것은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다. 눈꺼풀에 미세한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만 움직이고 눈꺼풀 근육은 원래 뇌에서 내려오는 전기자극에 대해서만 움직여야 한다. 눈꺼풀 떨림은 뇌 자극이 아닌 자극에 대해서도 움직인다는 예컨대, 최근에는 피로와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몸에 피로물질이 쌓이면 미세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신경에 미세한 염증반응이 일어나면 예민해진다. 전문용어로 신경세포의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아진다고 한다. 신경세포가 예민해지거나 주먹이 작은 자극에도 눈꺼풀 근육이 반응해서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눈꺼풀 떨림의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수면과 휴식을 권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눈 아래나 옆 그리고 입 주위가 떨리는 안면 경련은 단순 피로가 원인이 아니다. 뇌혈관 문제일 경우가 많다.

얼굴이 떨리는 이유는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지만 눈꺼풀 떨림과는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눈꺼풀 떨림처럼 잠서 만에 증세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지속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은 더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다.

눈꺼풀 떨림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반면 얼굴 떨림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견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다. 한쪽 눈이 떨리면 원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성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된다. 한 60대 여성은 얼굴 떨림 증세에 대해 '남성들과 대화할 때 원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되도록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을 땐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말을 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안면 떨림이 있으면 뇌혈관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다. 안면의 근육을 관장하는 안면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이 뇌혈관과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혈관의 심장이 뿜어 내는 혈액이 박동하는데, 이 박동이 자극원이 되어서 안면신경을 움직이고 얼굴을 떨

리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땐 뇌혈관과 안면신경을 분리해 주는 수술을 받으면 나올 수 있다. 뇌 안으로 접근하는 뇌수술이긴 하지만 수술기법과 장비가 발달해서 지금은 거의 위험성 없이 수술이 이뤄질 수 있다.

만일 지속적인 안면경련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일단 신경외과에서 뇌혈관과 뇌신경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마그네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고, 보톡스로 떨리는 근육을 위축시켜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뇌혈관과 뇌신경이 원인이 아닌 얼굴 떨림에 대해 아직 현대 의학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게 항콜린성 약물과 신경안정제이다. 하지만 70% 정도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도할 수 있는 게 보톡스 치료다. 보톡스는 근육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떨리는 눈 주변 근육이나 입 주변 근육에 보톡스를 넣어서 위축시킨다면 떨리는 모양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치료법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다만, 한번 치료했을 때 효과 지속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제한적이다.

기고



최윤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이 동네는 거리에서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자주 보여." 광주지역을 방문한 이 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다. 아픈 사람이 많아서라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결박기에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점이 특이했다고 한다. 실제로 환자복 차림의 사람이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며 장을 본다는 이야기는 애초 수준이고, 심지어 저녁 술자리에서도 환자복과 마주쳤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들린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물론 여기에 여러 사회·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보험사기(Insurance Fraud)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1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국 평균보다 5~6%p 높은 수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여기서 손해율이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지역사회 좀먹는 보험사기 예방하자

비율인데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도 지급하는 보험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손해율이 높은 것은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교통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한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지역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평균 5.8명이 입원을 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70%나 높은 수치이다. 입원일수도 전국 평균보다 2일이나 많고 평균진료비 또한 20%나 높다. 그렇지만 유독 광주에서만 장기간 입원이나 고가의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다음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한방병원의 문제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전국 한방병원의 3분의 1인 84개 한방병원이 운영 중인데 이는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전국 평균의 11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방병원의 난립은 필연적으로 병원간 과도한 경쟁을 촉발하고 결국 비도덕적 보험금 청구(Moral Hazard)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게 된다.

최근 적발된 'A의원'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A의원'은 병원사무정이 불법으로 병원을 설립한 후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환자를 모집하여 병원차트에만 이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수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다가 수사기관에 탐미를 잡혔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사기는 과연 어떤 해약을 끼칠까? 먼저 보험금의 누수(漏洩)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2조원이 넘는 보험사기가 적발되었으며 발각되지 않은 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크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치를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금전적인 피해보다 더욱 심각한 위험은 보험사기가 지역사회 공평성을 심각하게 좀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는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부당이익이 커서 일반인이 쉽게 중독되는 범죄이다.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도 우연한 유혹으로 불로소득을 맛보게 되면 다시금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죄의식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 심각한 보험사기로 적발되어도 정작 본인이나 그나마 범죄로 여기지 않고 단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금을 이른바 '논넌 돈'으로 생각하고 보험금 부당청구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지면 보험사기가 우리 지역공평체를 병

들게 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금융감독원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구축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검·경찰, 보험회사 등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광주지원에서도 광주시내 중심가에서 보험사기 적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및 한방병원 관계자 등 보험사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는 보험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지역방송에 방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기를 대하는 우리 지역 태도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향후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경우 지역 내 보험가입자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온상이라는 명제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다. 이제야말로 보험사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일선 보험담당자가 털어놓는 보험사기의 무서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20대에 보험사기의 탈꿈함을 접해본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너무 쉽게 큰 돈을 벌어봤거든요."

社說

반기문 불출마 선언으로 요동치는 대선 정국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던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실수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 교체 명분이 실종됐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평소 소대로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하던 그가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사실상 중앙 정치 무대 진입의 한계를 점검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생 투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모호한 비전 등으로 점차 떨어지는 지지를 등이 결단을 내리는 데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순실 사태' 이전까지는 1위를 달렸던 그의 지지율은 귀국 후 3주가 지나자 10%대까지 떨어지며 문재인 전 대표

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반 전 총장의 결단을 중중하며, 그의 경륜과 경험이 국가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의 중도 낙마로 향후 대선구도가 크게 요동치게 됐다. 당장 반 전 총장의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대선 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안희정 총남지사가 '총청 표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문 전 대표가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사실상 중앙 정치 무대 진입의 한계를 점검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생 투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모호한 비전 등으로 점차 떨어지는 지지를 등이 결단을 내리는 데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순실 사태' 이전까지는 1위를 달렸던 그의 지지율은 귀국 후 3주가 지나자 10%대까지 떨어지며 문재인 전 대표

8인 체제 현재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고 이 정미 헌법재판관이 어제 재판관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8인 체제' 현재의 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게 됐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0회 변론을 시작하며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소장도 전날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월13일 이전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비상사국이 길어질수록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의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더 이상은 나라와 국민이 탄핵 정국에 발목 잡혀서

는 안 된다. 현실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다음달 13일 이 재판관이 풀러나면 현재는 7명 체제가 된다. 이들 중 뜻밖의 사고로 추가 공석이 생긴다면 현재는 모든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일 때만 심리가 가능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7명 체제에서 심리를 할 경우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능한 한 8명 체제에서 결론이 내려야 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면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현재는 심판 결정이 늦어지고 빨라지는 것이 어느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오로지 가장 빠르게 또 어떤 시냇거리도 없게끔 공정하고도 엄격하게 탄핵 심리를 마쳐야 한다.

無等鼓

'1913 송정역 시장'에 가면 재미난 가게가 있다. 전라도 사투리를 활용해서 만든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역사사소다'. 말려에는 달마다 이름을 붙였다. '포도시 일월', '따스운 삼월', '정해 가을', '옥빛소심어월'. 딱 어울리는 단어들이다. '뽀터러 나왔나 머더러 나왔어 축하한다'라 적힌 생일카드도 빙그레 웃음 짓게 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해마다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를 열고 수상자에게는 '질로 존 상', '영랑 오진 상', '어찌구나 상' 등을 수여한다.

사투리의 귀환

전라도 사투리가 생활 속으로, 예술 작품 속으로 속 들어왔다. 기존에 소비되던, 가볍고 우스꽝스러운 면을 벗어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정자로 적용하고 있어 반갑다. MBC 드라마 '역적-백성'을 흥진 감독'에서도 전라도 사투리를 만날 수 있다. 친한 노비 '아모개' 역을 맡은 김상중의 사투리는 목직한 울림을 주며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시에서도 사투리는 매력을 발산한다. "기사 양반! 저쪽은 조간 돌아서 갑시다./ 어쨌게 그란다요 빠스가 머택신지 아요?/ 아따 늙은이가 풀박이

어떻게 그려제/ 쓰잘데기 읊는 소리하지 마시오/ 저변좌에 기사는 돌아가들마는~/ 그 기사가 미쳤능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당개/ 저변좌에도/ 내가 모셔다드렸는디" 장흥 출신 이대홍 시인의 '아름다운 위반'엔 사투리의 매력이 오롯이 담겼다.

올해 대학로의 화제작은 연극 '남자충동'이다. 류승범이 주역을 맡았는데 1990년대 목포가 배경으로, '대부'의 알 파치토를 동경하는 조직폭력배 장

정이 가족을 지키고 보스가 되기 위해 벌이는 이야기다. 수년 전 관람했던 이 연극

은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가 인상적이었다. 작품이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장정이 쏟아 내는 사투리엔 진한 비장미가 담겨 있었고, 당시 주역이었던 안석환의 연기는 관중을 압도했다.

올 광주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재해석한 '맥베스 411'이 공연된다. 이해제가 연출을 맡고 안석환과 지역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작품이다. 음모와 배신 등 '무거운' 주제를 사투리로 어떻게 풀어낼지, 어떤 비장미가 드러워질지 기대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
| 편집 부 220-0649 | 문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
| 정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광고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사회 부 220-0642 | 체육 부 220-0697 | *우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사 회 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